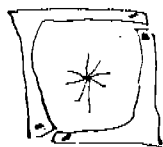


인간관계론



성 내 운
〈연세대 교양학부장〉

인간관계론은 전인적 파악을 의미한다. 전인(全人)이란 단위로서의 사람, 즉, 그 이하로 더 잘게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조그만 단위로서의 덩어리인 사람을 말한다.

인간적 관계가 충만할 때 비로소 지적 사회적 성숙이 쉽게 이루어 진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친구 사귀는 유무에 따라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가져온다. 지적인 Interaction에도 정서적인 Interaction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 1학급에서 최하위 성적의 5명의 친구 관계를 조사했더니 친구가 없었고, 반대로 친구가 많은 5명의 인간관계를 조사했더니, 공통점으로 나온 사실은, 교사가 그들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켰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위 5명에게 나머지 공부를 중단시키고, 의식적으로 교사가 심부름을 시켜, 2개월후 조사한 결과 성적도 상승하고 친구도 생겼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관계가 원만히 이루어 질 때 지적, 사회적 성숙에도 장애가 없는 것이다.

Psychosomatic medicine(心而身)이란, 인간의 사고와 운동은 서로 협조하여 움직이므로, 생각과 운동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사고속에 운동이 있고 운동속에 사고가 있다는 것이

다.

재활원을 예로 들어 인간관계 개선을 살펴 보면

1. 장애에 대한 밀바탕에 깔린 공포를 제거해 준 다음, 침체된 생을 활기찬 생으로 전환시킨다. 일반적으로, 불구아의 부모나 어린이가 표현한 욕구는, 모두 중학교 입학이었으나, 잠재된 욕구는 장애에 대한 불안 불행감 무력감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헬렌·켈러의 자서전을 교과서로 채택한 결과, 자발적인 활동양상을 보였고, 활력에 찬 생활양식이 되었다고 한다.

2. 비관에 대해서는, 소아마비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실업가, 의사, 예술가, 목사 등을 초청, 만날기회를 주어 비관을 해소시키고, 확신감을 준다.

3. 자신을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린이 스스로가 문통(Communication)을 위해 신장모임을 만들고, 재활원에 입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원으로 하여금 통신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해 주는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상 3가지 방법을 통해, 이제는 자기를 확인하고, 남을 격려, 설득하여, 밝은 전망을 찾고, 한사람으로서의 활기를 획득케 되는 것이다.